

광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 '광주상생카드' 출시

지역자본 역의 유출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연매출 5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광주시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광주상생카드'를 20일 공식 출시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이용섭 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회장,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소상공인·상인연합회, 공공기관, 대학, 기업, 경제·건설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상생카드'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 관련단체 등 58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광주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수당 등 활용 가능한 예산을 집행하고 소속 직원 등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기념사에서 "광주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광주경제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광주상생카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공공기관 등이 앞장서서 광주 상생카드를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상인연합회 손중호 회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면서 "지역 소상공인으로서 광주상생카드가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상생카드'는 체크카드와 정액형 선불카드 등 2종으로 출시되며,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 전 지점과 광주은행 인터넷,

모바일 웹에서 발급신청 가능하다.

광주소재 카드가맹점은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휴업소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게는 광주상생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광주상생카드 사용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 순으로 선불카드 구매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사용 업종에 따라 캐시백 및 기아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시 기념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광주상생카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광주은행 홈페이지(<http://www.kjbank.com>)를 참고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상생카드 출시 기념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개월째 운행중단 공항버스

운행 재개 협의 '평행선'

버스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율"

광주시 "별도 보조금 지원 불가"

경영난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광주 '1000번' 공항버스의 운행재개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버스 운영업체 측은 보조금 지원을 광주시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올해 초 휴업 이후 1000번 버스 운영업체인 '광주관광'과 수차례 만나 공항버스의 운행재개를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체 측은 2년 전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운송수입이 감소해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광주시에서 유류 보조금

월 3000만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2년 1월 인허가 조건에 '손실보상금 미지급'이 명기된 만큼 별도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좌석버스 수준(17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환승제도를 공항버스에도 도입해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관광'은 시의 제시에 대해 검토한 뒤 재개 또는 폐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관광 측은 오는 2020년까지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 시외운행으로 '공항버스'의 지역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청년창업자 200억 특례 보증

창업 5년 이내 기업

최대 5000만원 대출 지원

광주시는 창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에게 2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지원되며, 1년 일시상환 고정금리 2.8%, 5년 분할상환 3.2%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6개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시는 청년창업자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기업에 자금 대

출 보증을 한다.

창업자금 대출 참여 은행은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며, 이들은 행은 저렴한 대출금리로 창업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는 등 광주 창업생태계 조성에 동참한다.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행받아 6개 취급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창업자를 위해 마케팅, 점포운영 등 전문 컨설팅을 100개 기업에 제공하고 경영 개선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참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2016년 청년창업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2986개 창업기업에 650억원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국악상설공연 세차례 모두 만석

23일 광주공연마루 넷째마당

민선 7기 광주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3월부터 선보인 '광주국악상설공연'이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관객으로 가득했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넷째마당을 연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꾸미는 이번 공연은 한상일 상임지휘자, 소리꾼 김산옥의 사회로 창작국악관현악곡, 북한 전통음악, 판소리, 창작무용, 모듬합주곡 등 다채로운 국악관현악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첫 무대는 최첨단 퓨전음악과 현대 감각의 리듬으로 표현된 창작 국악 관현악 '프론티어(지휘 최원복)'로 힘차게 문을 연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공식음악으로 작곡가 양방언의 작품으로 미래의 음악으로 향하는 모습을 표현한 곡이다.

이어 가야금 3중주 연주로 북한 전통 음악 '황금산 백도라지', 판소리 '흥보

가' 중핵적인 요소가 가장 많고 너른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박타는 대목(소리 박혜인 고수 임영일)', 봄이 되어 박씨를 물고 날아오는 제비의 여행과정을 엮은 'THE Road : 제비노정기(소리 김산옥)'를 들려준다.

국악관현악과 어울린 창작무용 '그리고 그 후' 무대에 이어 마지막 무대는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다이나믹한 관현악 선율이 돋보이는 모듬북 협주곡 '타(打)'를 연주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전 단원과 김광숙씨의 모듬북 협연이 함께 어우러져 웅장한 무대를 선사한다.

전통국악에서 창작국악, 우리춤, 사물놀이 까지, 국악의 모든 즐거움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전석 무료로 열린 무대로 진행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해양도시가스,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협약

광주시와 (주)해양도시가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오후 시청 3층 집결실에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이용섭 시장과 김형순 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해양도시가스가 장학금을 기탁하면, 광주시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추천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 집행과 행정 지원 업무를 맡는다.

협약기간은 2년이며, 광주지역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기준 80% 이내 학생들에게 매년 6400만원씩 총 1억 2800만원을 지원한다.

김형순 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며 "해양도시가스는 앞으로도 사회계층을 위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적절 후보 아니다"

인사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가 김강원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절한 후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광주시의회 광주환경공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김 후보자의 장점으로 수십년간 환경 분야에 몸 담아 관련 전문 지식이나 이해도가 뛰어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민사회단체 이사장 재직 시 불투명한 회계,

미숙한 행정처리, 주먹구구식 운영 등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청문회 준비를 위해 의회가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제출됐고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번복한 점도 지적했다.

특위는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갖췄지만, 조직운영 및 경영능력은 미흡해 보여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한 후보자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중한 의견을 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의회로부터 이 같은 보고서를 전달받고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